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 코로나19 백신으로 안전하게

- '23년 1월~7월간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8,600명 이상의 사망 예방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65세 이상의 10명 중 4명 참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역학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23년 1월~7월(1~30주)간 약 8,6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였다고 전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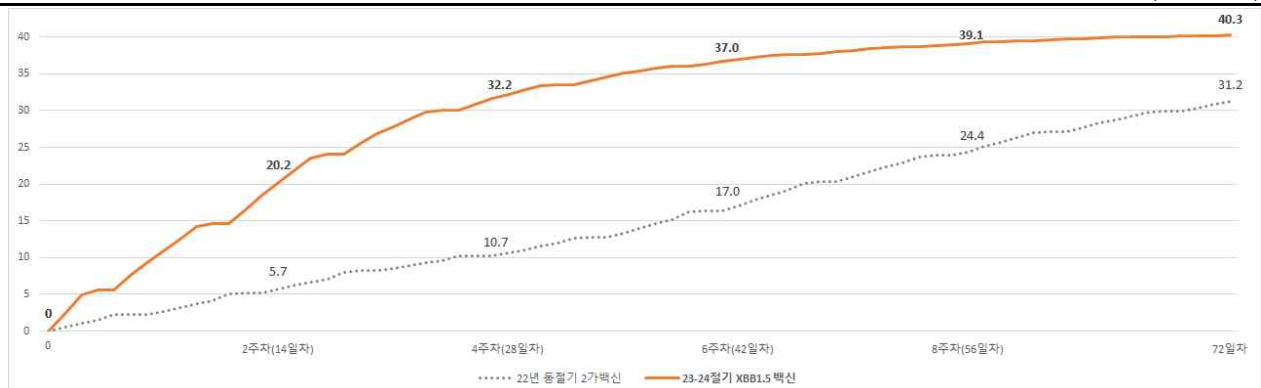
* 23.1월-23.7월 4주 동안의 확진자에 대한 사망 예방 규모(전수 감시가 시행된 23.8.31. 기준)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8.31.)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번 절기 65세 이상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12월 2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의 누적 접종자는 3,935,140명, 누적 접종률은 40.3%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31.2%) 대비 30%가량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여 작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졌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단위 : %)



정부는 코로나19가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염병으로 전환되기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하여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매 절기 유행 변이에 맞는 백신을 도입하고 백신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효과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2가백신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의 1/8수준(12.4%), 사망 위험은 1/5수준(21.7%)으로 낮아져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입원·사망 예방효과를 알 수 있었다.

* 65세 이상의 접종 후 5~6개월 시점에서의 백신 효과, 코로나19 검사(22.12.1.~23.5.31.)를 시행한 10,102명의 예방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 분석(1차)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현재 우세종인 HK.3(12.3주 검출률 58.2%)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 JN.1(5.8%)에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XBB.1.5 백신이 HK.3, EG.5를 포함한 XBB 하위계통에 효과적인 것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하여, XBB.1.5.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 기술자문그룹 TAG-CO-VAC, 12.13.)

* XBB.1.5 단가백신은 HK.3.1(접종 전·후 중화항체 상승비 13.5배) 및 최근 WHO가 관심변이(VOI)로 지정한 JN.1(7.7배)에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임(출처 : 모더나 임상자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므로 고위험군은 적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 입원·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코로나19가 앞으로 엔데믹화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아직 백신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권근용 (043-913-2320)
		담당자	사무관	김유리 (043-913-2309)
담당 부서 <협조>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권동혁 (043-719-7950)
		담당자	연구사	백수진 (043-719-7971)